

大學教授 研究活動의 特性과 問題點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I. 序 言

研究란 한마디로 知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가는 제반 知的 探究活動이다. 傳統的으로 大學은 既存知識에 대한 끝없는 反省의 檢證과 새로운 知識의 創出을 통한 지식의 增進·擴散 그리고 傳授를 主機能의 한 가지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곧 大學教授들에게 있어서 研究活動이 授業活動과 統整體制를 이루며 하나의 責務的 活動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성스러운 權利行使로서 생각되어져 온 까닭이기도 하다. 大學教授들에게 있어서 研究活動은 知的 好奇心에 기초한 動機의 自發性, 知識의 創出과 傳授라는 目的의 純粹性, 그리고 科學的 追求라는 專門의 活動의 自律性과 倫理性을 근간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의 研究活動에 대한 이러한 傳統的인 思考는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大學內·외의 諸般 다양한 變化와 더불어 많은 도전과 갈등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教授들의 研究活動은 대학내의 복잡한 學術組織構造의 內面的 力動性에 휘말려 교수들에 대한 大學의 內的 統制의 강력한 一手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博士學位가 대학이라는 學術世界로의 進入을 위한 필수적 要件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발전되기 시작한 研究 위주의 大學院教育의 擴散은 교수들의 研究活動에 대한 選好的 價値觀을 형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작용하였다. 교수들의 研究選好 態度는 교수들의 또 다른 중요한 責務인 授業活動이 희생 내지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의 對社會 公共奉仕的 責務의 강조는 大學教授들의 傳來的 純粹研究 위주의 연구 활동을 應用研究로까지 그 범위를 확산시키면서 대학 교수들에 대한 國家나 產業界의 研究費 支援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發展의 過程 속에서 교수들의 연구활동의 自律性과 專門性은 商業主義的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大學教授들이 研究活動에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은 비단 위에서 列擧한 문제들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相互 因果的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大學教授들의 研究活動의 本質的 特性을 두 가지 觀點에서 살펴 보면서 問題點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教授의 研究活動 動機

教授들은 어떠한 欲求 또는 誘因體에 기초하여 研究活動을 수행하는가? H.C. Kelman은 일찌기 態度變化의 세 가지 過程을 인간의 세 가

지水準의 欲求에 기초하여 밝힌 바 있다. 즉 生理·經濟的 欲求(physio-economic needs)에 기초한 盲從, 社會的 欲求(social needs)에 기초한 同一視, 그리고 自我欲求(ego needs)에 기초한 內面化의 過程이 바로 그 세 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大學教授들의 研究活動에 대한 動機를 위의 세 가지 欲求側面에서 살펴보면서 問題點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비록 그 數는 적을지 모르지만, 대학 교수들이 生理·經濟的 欲求에 기초하여 研究活動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狹窄의 原理에 입각한 인간의 지극히 原始的이고 도 本能的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外部의 補償과 罰이라는 統制的 機에 순응하기 위한 행동과도 같은 것이다.

예컨대, 大學社會에서 이미 制度的으로 定着된 지 오래된 行政的 促進 또는 規制策으로서의 研究業績要件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義務感에서 研究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즉 昇進, 昇給 또는 契約의 更新이나 延長, 終身制(tenure)로서의 任命 등에 필요한 要件을 충족하고자 一定期間안에 요구되는 最小限의 量의 研究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는 연구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수행된 모든 研究가 연구로서의 本來的 價値를 망실한 또는 質이 극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時限的 負擔이 있었기에 그만큼 연구가 수행되고 活性化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外的인 動機誘發에 근거한 研究를 위한 研究는 아니었는가를 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 問題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大學內에서의 그들 자신의 地位存續과 維持만을 위한 道具의 手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 起因하는 것이다.

한편, 生理·經濟的 欲求에 기초한 研究動機의 또 다른 하나는 연구에 따른 經濟的 利得이 연구 그 자체의 目的이나 價値보다 先行되어 추구될 때라 할 수 있다. 예컨대, 研究費는 물론 이러니와 그 研究結果의 出版을 통한 收入 또는

特許 등의 權利獲得을 통한 收入의 增大가 研究遂行의 目的이자 동기르 작용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둘째, 상당수의 教授들은 社會的 欲求에 기초하여 研究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하겠다. 경쟁적 學術社會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함은 물론이러니와, 學術集團組織社會(learned society)의 구성원으로서의 所屬感을 확보하기 위한 手段으로 연구는 수행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學術社會 內·外에서의 威信과 名聲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研究가 수행되기도 한다. 그것은 물론 授業活動의 卓越性으로 획득하는 名聲이 局地的이고 時限性이 있는데 반해, 研究結果의 出版을 통한 名聲은 대학 캠퍼스 내외로 擴散되고 또 長期的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利點에서도 기인한다. 획득한 名聲이나 學術社會에서의 건고한 위치 확보는 곧 그 教授 개인의 心理的 安全感를 높여 줄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原動力으로 작용하는 利點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밝힌 두 가지의 경우에는 學術研究活動의 의미를 出版에서 最終的으로 찾는다. 즉 出版되지 않은 研究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때 大學社會를 풍미하였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그 殘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出版하라, 그렇지 않으면 自滅하라(publish or perish)”의 原理가 실감있게 들렸던 것은 그것이 創出된 새로운 知識의 擴散이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연구의 生理·經濟的 欲求나 社會的 欲求의 觀點을 더욱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學術誌에의 論文掲載는 불티나는 競争을 벌여야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學術研究의 質의 水準을 최소한도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信念에서 까다로운 基準과 엄격한 審査節次를 내세운 많은 學術誌들이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反面, 그렇지 못한 學術研究 結果들을 自體的으로 모아서 學術社會에서의 共同生存을 꾀기 위한 學術誌들의 雨後竹筍的인 刊行은 결코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1) H.C. Kelman,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58. 2, pp. 51-60.

필요가 있다. 한 機關의, 한 研究所의 장식품으로서 對外的인 체면유지와 더불어 研究者들의 社會的 要求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研究論文集의 刊行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지극히 危殆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새책, 自我欲求에 기초하여 研究를 수행하는 교수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內面的으로 형성된 眞理探究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그것을 研究活動으로 옮기는 知的 刺戟을 강하게 느낀다. 問題를 느끼기에 研究에 着手하며,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기에 그것을 體系化시키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한다. 결코 研究를 하여야 하겠다는 전제하에 研究問題를 찾는 것이 아니라, 研究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知的 探究의 마지막 過程에서 결단을 내려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眞正한 意味에서의 學術研究精神(scholarship)을 발휘하는 교수들이다. 이들은 결코 自滅의 위험 때문에 研究結果를 出版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그들의 研究結果가 곧 그 學術社會에서의 知識發展에 공헌할 수 있을 만큼 價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에 그것을 출판한다. 즉 出版하여 知識을 啓發하고 (publish and enlighten), 出版하여 知識의 隆盛을 기하고자(publish and flourish) 한다. 이들은 研究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經濟的 또는 社會的인 外的 補償보다는 內面的 補償, 즉 知的 探究 그 자체의 기쁨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곧 授業活動을 통하여 學生들과 나누어 갖게 되며, 새로운 知識을 傳授하고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세 가지 수준의 教授들의 研究活動 動機 가운데, 연구의 本質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세번재의 自我欲求에 기초한 研究動機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生理·經濟的 欲求나 社會的 欲求에 기초한 교수들의 연구활동 動機는 모두 그릇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앞서도 지적하였거니와, 그것이 研究를 위한 연구 또는 形式的 要

件化될 때에 심각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大學教授들의 研究活動은 教育機關으로서의 大學에서 수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專門研究機關에서의 연구가 아니다. 즉 教授들의 연구활동은 授業 또는 教育活動에 生動力을 불어넣으며 서로 統整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生理·經濟的 欲求 또는 社會的 欲求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그것은 다분히 學生들에 대한 教育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자신들의 利己的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게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야 하리라고 본다.

Ⅲ. 研究活動과 授業活動의 調和

大學教授의 여러 가지 다양한 義務 중 研究活動과 가르치는 授業活動은 가장 代表的인 中核的 責무이자 相補的인 關係의 責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義務는 교수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選好의 對象으로서의 경쟁적 관계에 놓일 때가 많다. 예컨대 教授들의 時間과 能力, 大學의 財政與件 또는 施設이라는 각종 資源의 不足에 따른 對立과 競爭이다.

그러나 T.W. Martin과 K.J. Berry는 研究와 授業은 근본적으로 教授들 개개인의 役割葛藤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처음에 教授를 채용할 때는 가르치라고 채용해 놓는 일단 채용한 다음에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연구하는 業績에 기초하여 교수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역할 갈등은 教授들의 機能을 연구와 수업기능으로 分離하여 교수를 構成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²⁾ 하기는 그래서인지 일부 大學에서는 研究教授制度를 두어 授業을 하지 않고 오로지 研究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의 主張에 反하여 C. Jencks와 D. Riesman은 研究活動과 授業活動은 결코 對立的인 것이 아니며, 問題는 그 두 가지 活動을 어

2) T.W. Martin and K.J. Berry, "The Teaching-Research Dilemma: Its Sources in the University Setting",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969, 40, pp. 691-703.

떻게 調和시키느냐에 있다고 하였다.³⁾ 이러한 주장은 비단 이들 두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많은 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大學教授들은 이 두 가지 責務 중 그 어느 한 쪽을 選好하고 있음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性向을 調査한 實證的 資料를 파악하지 못하여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美國이나 英國, 獨逸 등의 구미 선진국의 大學教授들을 對象으로 調査된 統計的 資料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選好의 性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예컨대, 英國의 경우 「Robbins 報告書」에 제시된 영국 대학 교수들의 職級別 및 專攻分野別 時間活用の 百分率은 다음의 <表 1>에 제시한

바와 같다.⁴⁾

아래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職級과 分野에서 연구보다는 가르치는 수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研究보다는 授業 위주 내지는 授業選好의 機能을 교수들이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授業選好의 태도는 英國式 學部中心 高等教育體制를 받아들인 美國의 많은 소규모 私立 人文大學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R.I. Miller의 分析에 따르면, 學生數 12,00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들의 授業負擔도 크고 또 교수들도 연구보다는 授業指向性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반면, 學生數 20,000명 이상의 大學院中心 研究綜合大學에서는 교수들의 研究選好 性向이 배

<表 1> 英國 大學教授들의 時間活用 百分率 (%)

		수업 ¹⁾	연구	개인학습	행정	대학내 ²⁾ 기타일	대학밖 기타일	합계
職 級 別	professors	26	18	9	25	13	9	100
	readers	30	29	10	14	10	7	100
	senior lecturers	35	23	10	13	12	7	100
	lecturers	37	26	12	9	11	5	100
	ass't lecturers	42	32	13	4	7	2	100
	demonstrators	36	41	10	3	7	3	100
	research staff	12	62	11	5	6	4	100
	others	20	31	16	15	9	9	100
分 野 別	인문과학	40	22	12	11	10	5	100
	사회과학	32	20	13	15	11	9	100
	자연과학	34	34	9	10	10	3	100
	응용과학	38	22	10	12	12	6	100
	임상이전의학	25	40	12	8	9	6	100
	임상의학	19	29	13	9	13	17	100

- 1) 수업활동에는 수업준비와 학생들 숙제지도가 포함되어 있음.
- 2) 시험에 사용된 시간은 대학내 기타일로 처리되었음.

3) C. Jencks and D. Riesman, *The Academic Revolution*, Garden City, N.Y. : Double Day, 1969, pp. 532-533.
 4)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Chairman: Lord Robbins), *Higher Education*, Report of the Committee,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63, p. 183.

우 강하고, 學生數 12,000~20,000명 사이의 中間規模의 綜合大學들의 교수들은 장차 큰 研究 綜合大學으로 옮겨 가려던 研究業績을 많이 쌓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授業活動을 위축시킬 수도 없는 갈등에 빠져 있다고 한다.⁵⁾

이와 같이 研究活動보다는 授業活動을 重視 또는 選好하는 성향이 大學의 類型에 따라 다른 것은 1975~1976학년도 카네기 調査(Carnegie Surveys)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研究 업적보다는 授業의 效率性이 교수들의 승진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設問에 대한 贊成 率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表 2) 참조.⁶⁾

〈表 2〉 教授 昇進基準으로서의 授業의 效率性 優 先考慮 贊成率

大學의 類型	贊成率 (%)
研究綜合大學	48
博士學位授與 綜合大學	64
綜合大學 및 單科大學	84
人文單科大學	91
地域社會·初級大學	96

교수들이 연구활동보다 授業活動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은 研究와 出版이 결코 效率的인 授業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 그 분야에 대한 知識이 그것을 傳達하는 能力에 副次的이라

는 점, 그리고 研究는 自身の 專門職(profession)을 위한 것이지만 授業은 大學을 위한 것이며, 大學教授는 우선 大學內 奉仕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學生들의 教授에 대한 全日奉仕要求를 충족시키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學生들은 마땅히 배워야 할 權利가 있고, 배우 고자 할 때, 學生들은 인제고 教授를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教授들이 연구 때문에 '研究室'에 머물면서 學生들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E.D. McDaniel과 J.F. Feldhusen이 Purdue 대학의 76명의 교수와 4,48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效率的인 교수는 오히려 책을 出版하지 않는 교수이며, 研究活動과 授業效率性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는 結果가 나오기도 하였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美國 大學教授들의 研究選好 性向은 계속해서 增大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獨進式 大學院中心의 高等教育體制를 옹호하는 研究綜合大學 또는 세칭 엘리트 大學들의 教授들에게서 研究選好 性向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선 1960년대에 이루어진 두 가지 연구보고를 살펴봄이 좋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연구는 모두 교수들의 研究와 授業活動에 대한 期待水準과 실제의 現在實態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즉 하나는 大學院 프로그램

〈表 3〉 大學院 프로그램에 대한 研究對 授業 選好傾向

專攻分野	現 在 實 態					期 待 水 準				
	연구위주	수업위주	균형	무응답	계 (%)	연구위주	수업위주	균형	무응답	계 (%)
物理科學	79	6	12	3	100	60	5	28	7	100
生物科學	74	6	18	2	100	48	4	45	3	100
社會科學	63	15	18	4	100	37	16	43	4	100
人文科學	—	—	—	—	—	25	32	39	4	100
專門職業分野	58	21	17	4	100	32	19	42	7	100

5) R.I. Miller, *Developing Programs for Faculty Evalu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1974, pp. 16-19.
 6) A. Levine,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San Francisco: Jossey-Bass, 1978, p. 178에서 再引用.
 7) E.D. McDaniel and J.F. Feldhusen, "Relationships between Faculty Ratings and Indexes of Service and Scholarship", *Proceedings of the 7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0, 5, pp. 619-620.

〈表 4〉 教授의 活動別 時間配分比(%)

大學水準 反應 活動	上		中		下	
	現在實態	期待水準	現在實態	期待水準	現在實態	期待水準
學部授業	29	25	46	34	64	43
大學院授業	18	22	13	23	0	19
研究活動	32	43	22	35	15	28
行政業務	21	10	19	8	21	10
計	100	100	100	100	100	100

〈表 5〉 教授의 年齡別 研究對 授業 選好傾向(%)

연령	연구 절대선호	연구 다소선호	수업 다소선호	수업 절대선호	계
35세 미만	20	46	24	9	100
35-44세	16	44	30	10	100
45-54세	11	40	31	18	100
55세 이상	9	34	33	24	100

에 대한 教授들의 性向을 専攻分野別로 살펴본 것으로서⁹⁾ 그 結果는 〈表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大學의 優秀性 정도에 따라 三區分한 다음 각 部類의 大學教授들의 選好性向을 分析한 것으로서⁹⁾ 〈表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紙面의 制限이 있어 앞의 두 表에 나타난 현상을 보다 깊이 論議하는 일은 생략하겠으나, 한 가지 꼭 특기할 일은 〈表 4〉의 研究活動의 경우 現在實態가 期待水準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바, 앞으로 研究重視 性向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는 점이다. 研究를 選好하는 性向이 大學類型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 하는 점은 앞서 제시한 〈表 2〉에서 教授昇進 基準으로서의 授業의 效率性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設問에 贊成率이 어느 정도나 낮았느냐를 보고서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教授들의 研究選好에 관하여 한 가지 資料를 더 제시하던 위의 〈表 5〉에 제시된 1977년도의 Ladd/Lipsett 調査에 따른 年齡別 授業對 研究選好傾向이다.¹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年齡이 많은 教授들일수록 授業活動을 選好한 반면 年齡이 적은 教授들은 研究活動을 選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年齡이 낮고 따라서 職級이 낮은 專任講師나 助教授들이 終身制(tenure)任命과 관련하여 그 基準이 되는 研究業績을 누적시키고자 하는 열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가르치는 일보다 研究하는 일을 더 重視하고 選好하는 教授들의 共通된 主張은 연구는 곧 가르치는 일을 強化시키며, 연구는 授業準備의 한 가지 형태라는 점이다. 특히 급속한 學問發展의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授業에 反映시

8) B. Berelson, *Graduat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cGraw-Hill, 1960, p. 47.

9) T. Parsons and G.M. Platt, "Considerations on the American Academic System", *Minerva*, Vol. 6 (Summer 1968), p. 519.

10) E.C. Ladd, Jr., "The Work Experience of American College Professors: Some Data and an Argument,"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1979, p. 44.

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研究가 先行되어야 함을 내세운다. 아울러 學生들은 教授가 研究를 하여 그것을 出版하였을 때, 그의 知識과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더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Tufts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出版하는 교수나 政府의 研究費를 지급받는 교수들을 더욱 效率的인 授業을 하는 教授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教授들은 확실히 研究活動과 授業活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기에 빈번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교수들 간의 業務分擔形式으로 配分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大學의 役割分擔, 즉 大學院中心이나 學部中心이나에 따라 그 대학 전체의 政策的 優先順位가 바뀔 수는 있겠으나, 終局的으로 이는 교수 개개인의 均衡維持努力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注目할 만한 사실은 A.M. Mood의 未來의 후세에 대한 展望이다. 그에 따르면, 專門研究는 캠퍼스로부터 분리되어 캠퍼스 밖의 專門研究機關으로 그 役割이 넘어갈 것이라는 점이다.¹²⁾ 이러한 展望은 이미 1973년에 그가 내린 것이고 보던,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이미 具體的으로 實現되고 있음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大學教授들의 研究活動은 教育 또는 授業活動과의 統合體制下에서 더욱 다져져 나가야만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大學院 水準의 教育을 強化하고 質的으로 先導해 나가기 위한 教授들의 研究活動이 더욱 促成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비단 전통적인 캠퍼스 밖의 專門研究機關들이 研究施設의 우수성 등을 내세워 大學院 水準의 教育機能을 세우려 함에 경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의 차원이기보다는, 大學 本來的 教育과 研究機能을 알차게 수행하려는 自省的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교수들의 研究活動과 授業活動의 統合的 調和를 促成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인 뒷받침도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록 研究業績은 외현적

증거가 뚜렷하고 量的 基準의 評價가 쉬운 반면, 授業業績은 그렇지 못하다 하여 授業業績評價에 있어서 研究業績 일변도의 편파적인 제도적 운영은 止揚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IV. 結 言

이상에서의 같이 本稿에서는 教授들의 研究活動에의 動機와 그리고 교수의 授業活動과 研究活動간의 調和에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서 問題點을 찾아 보려고 하였다. 물론, 教授의 研究活動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위에 적은 두 가지 문제뿐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本 特輯의 탁월한 先輩教授들의 玉稿에서 지적되리라고 본다. 특히, 교수들의 研究活動 促進을 위한 여러 가지 條件整備에 관련된 內容들이 많이 제기됨으로써 서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에 本稿에서는 教授의 研究活動 促成을 위한 한 가지 本質的인 문제로서 教授 자신들의 責任과 自律에 대하여 몇 가지 管見을 결론 삼아 記述하는 것으로 하겠다.

教授로서의 生命은 근본적으로 教育과 研究活動에서의 完全한 自律(self-discipline)과 그 高潔性(integrity)에 달려 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의 완전한 責任과 自律은 곧 그 일을 수행하는 過程에서의 倫理와 그 일의 結果의 質을 守護하고 判斷하는 데 있어 自己自身이 最終的인 유일한 決定者가 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教授는 모든 研究活動의 展開過程에서 責任과 自律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컨대, 研究主題를 선택하고 研究方法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研究의 結果를 사실 그대로 出版할 수 있는 責任과 自律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정 고객집단의 問題解決에 봉사하기 위한 應用研究를 대학 교수들이 외면하고 오로지 基礎研究에만 몰두하는

11) J.B. Bresler, "Teaching Effectiveness and Government Awards", *Science*, 1968, 160, pp. 164-167.

12) A.M. Moo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1973, pp. 34-35.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고계집단으로부터 위촉받은 應用研究라고 해서 그 연구의 方向이나 結果가 연구의 本質의 制度에서 이탈한 편법을 통하여 그들의 問題나 希求를 合理化시키는 手段으로 전락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教授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研究의 責任과 自律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편견으로부터 해방되고, 事前判斷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며, 感性的 同調로부터 科學的 自我를 구출하는 일은 곧 교수가 研究活動에서의 책임과 자율을 유지하는 한 방도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模寫나 표절, 또는 ‘군데군데 따먹기 식’의 교묘한 學術詐欺보다는 차라리 無知를 坦露하며 배움의 場을 서로 마련하는 순수성이 곧 自律과 責任을 기하는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 교수들은 個人主義的인 研究性向에서 탈피하여 自發性에 근거한 協力的 研究體系를 수립하는 責任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研究는 더 이상 個人的 私的인 活動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思考의 發想은 個人的이어도 研究의 推進은 公的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오늘날 大學에서의 研究體系가 組織化되어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끝없이 細分化되어 가고 있는 각 學問 相互間의 交互의 接觸의 必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도 增大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學問分野 相互間의 協力的 研究가 보다 自發的인 努力으로 촉진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水平的인 間學問的 協力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垂直的인 體系에서의 教授 또는 研究陣間의 自發的인 協力이다. 특히, 元老教授들에 의해서 발휘되는 先導的 指導者役割(mentorship)은 新進教授들이나 大學院生들에게 教育과 研究를 統合하여 교수들의 研究活動을 균형있게 육성하는 데 있어 매우 有用한 방도가 될 것이다.

셋째로, 교수들은 研究活動을 통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제반 經濟的·社會的 利得만을 앞세우거나 또는 즉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社會的 有用

性에만 연연하여 研究를 수행하는 利己的 思考에서 벗어날 때 責任있는 自律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구는 자신의 知的 好奇心은 물론 學生들의 知的 欲求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구는 비록 그것의 社會的 活用性이 時間的으로 즉시성을 갖지 못하고 空間的으로 擴大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眞理를 探究하는 순수한 배움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을 수행하는 責任을 大學教授들은 기꺼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大學教授들이 지니고 있는 高深性이기도 하며, 또 그 고결성 때문에 大學教授는 信賴를 받고, 大學 밖의 온갖 機關들로부터 研究를 위촉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미 따먹기’ 식의 연구가 繼續性을 지니지 못하고 一回에 끝나버리면 바로 그러한 研究를 수행하는 교수들이 利己的 思考를 벗어나지 못하고, 責任있는 自律을 희생하여 자신의 生理·經濟的 欲求를 충족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비켜, 教授들은 자신들의 研究活動 또는 業績을 스스로 評價하는 責任과 自律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결코 量的인 計數的 評價要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研究論文의 篇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同一한 研究를 外樣단 달리하여 반복하여 發表·出版하는 無責任한 행위는 스스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大學에서나 學會 등에서는 教授들 스스로가 합의하여 세우는 嚴正한 審査 또는 評價基準, 量的인 基準보다는 質的인 評價基準을 더욱 深化시켜 學術研究의 탁월성을 教授들 스스로 守護하는 責任과 自律을 발휘하여야 한다.

研究活動은 곧 教授들의 學問的 自由를 느끼게 해주는 最善의 窓口이다. 그러나 그 窓口은 교수들이 責任과 自律을 그들의 研究活動에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닫혀 버리고 말 것이다. 教授들은 그들의 研究活動을 支配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研究活動의 노예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